

정치권도 '3不정책' 논란 가세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금지〉

노대통령 "교육 불평등 심화…폐지 안된다"

정운찬 전 총장 "교육부는 고등교육 손 떼라"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과 학생선발권 자율화가 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최대의 화제로 부각되고 있다. 3 불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주요 대학간 충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3불정책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범여권 대선주자군 중 한명인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에 가세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3불정책 고수를 천명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3불정책을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158개 사립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2일 3불

정책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편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3불정책이 올해 내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날 서울대 강연회에서 '3 불정책 폐지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정 전 총장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3 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3불정책 폐지는 절대 있다 수 없는 일이다'며 공교부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3 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론에 가세하고 나서자 "그런 정책은 할 수 없다"며 직공을 가졌다. 교육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자금의 상황을 그만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한국 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몇몇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를 훼손하고 있는데 아주 걱정스럽다. 제 입기가 얼마 안 남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3불정책 폐지는 절대 있다 수 없는 일이다'며 공교부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보장하고 학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김지하 시인 만난 청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23일 청탁공 인근 '싸롱 마고'에서 김지하 시인을 만나 중도개혁 세력 연대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키로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보장하고 학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부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범여권 주자들, 孫에 견제구

천정배 "우리쪽 후보 될 수 없다"

김근태 "손 전 지사와 뿌리 달라"

손학규 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놓고 환영 일색이던 범여권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개혁 드로'로 분류되는 대선주자군을 중심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대상 아니냐"는 노골적 비托 기류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열린우리당과 탈당 그룹 내부에서도 설부분 '여러보'라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먼저 탈당그룹 '민생정치모임'은 이끄는 천정배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 개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천 의원은 2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기 오늘과 내일'에 출연, "손 전 지사가 우리 쪽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반(反) FTA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 김근태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

연, "손 전 지사와 나는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서 선택을 달리했다"며 "손 전 지사는 민주당에 참여했고, 나는 정동아당인 민주당에 참여했다"고 손 전 지사와는 '뿌리'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신당 모임 소속의 열동원 의원도 "얼마 전까지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 아니냐"며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명분이 없는 보따리 장사라고 한 말이 그리 틀린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중도실용 성향이 강한 정동영 전 의장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 전 지사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반(反) 한나라당 전 선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일단 지켜줄 수밖에 없고, 당장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고, 문병호 의원은 "당분간 불가불 불가한 관계"라며 "당장 범여권에 와서 활동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tui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경매 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	-------	-------	-----------------------------	----

[아파트]

2006타경 8858	1	목포시 인 산동 1260 인산주공4단지아파트 403동 14층 1404호 49.62㎡	아파트	47,000,000 47,000,000
2006타경 18021	2	280 인산주공4단지아파트 401동 2층 206호 49.62㎡	아파트	45,000,000 45,000,000
2006타경 18540	4	동소 1260 인산주공4단지아파트 404동 9층 101호 49.62㎡	아파트	47,000,000 47,000,000
2006타경 18544	5	동소 1260 인산주공4단지아파트 404동 9층 904호 49.62㎡	아파트	50,000,000 50,000,000
2006타경 18545	6	동소 331 현대아파트 105동 14층 1405호 84.99㎡	아파트	60,000,000 60,000,000
2006타경 18546	7	동소 331 현대아파트 105동 5층 505호 84.99㎡	아파트	60,000,000 60,000,000
2006타경 18547	8	목포시 삼동 768 상동 2단지아파트 201동 4층 405호 38.64㎡	아파트	31,000,000 31,000,000
2006타경 18548	9	동소 768 삼동 2단지아파트 202동 8층 803호 38.64㎡	아파트	32,000,000 32,000,000
2006타경 18549	10	목포시 산동 768 삼동 2단지아파트 202동 8층 803호 38.64㎡	아파트	49,000,000 49,000,000
2006타경 18550	11	목포시 산동 845-1 2번지아파트 204동 5층 508호 48.34㎡	아파트	42,000,000 42,000,000
2006타경 18551	12	목포시 산동 845-1 2번지아파트 204동 5층 508호 48.34㎡	아파트	52,000,000 52,000,000
2006타경 18552	13	목포시 산동 328 3단지 아파트 102동 1층 806호 84.59㎡	아파트	60,000,000 60,000,000
2006타경 18553	14	목포시 산동 292 졸원나이스빌 106동 1층 120호 5160㎡	아파트	145,000,000 145,000,000
2006타경 18554	15	목포시 산동 292 졸원나이스빌 106동 1층 105호 20.5160㎡	아파트	145,000,000 145,000,000
2006타경 18555	16	동소 292 졸원나이스빌 107동 3층 303호 20.5160㎡	아파트	148,000,000 148,000,000
2006타경 18556	17	목포시 산동 1260 인산주공3단지아파트 301동 12층 1203호 59.58㎡	아파트	56,000,000 56,000,000
2006타경 18557	18	목포시 산동 1202 신안비자아파트 101동 15층 1505호 59.31㎡	아파트	35,000,000 35,000,000
2006타경 18558	19	영광군 삼동읍 웅암리 18-1 길촌파크빌 1동 1호 1201호 59.51㎡	아파트	50,000,000 50,000,000
2006타경 18559	20	목포시 산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4층 910호 56.07㎡	아파트	40,000,000 40,000,000
2006타경 18560	21	목포시 산동 776-2 광장아파트 1동 3층 306호 59.40㎡	아파트	34,000,000 34,000,000
2006타경 18561	22	목포시 산동 331 현대아파트 103동 1층 106호 84.99㎡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06타경 18562	23	목포시 산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4층 910호 56.07㎡	아파트	40,000,000 40,000,000
2006타경 18563	24	목포시 산동 776-2 광장아파트 1동 3층 306호 59.40㎡	아파트	34,000,000 34,000,000
2006타경 18564	25	목포시 산동 331 현대아파트 103동 1층 106호 84.99㎡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06타경 18565	26	목포시 산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4층 910호 56.07㎡	아파트	40,000,000 40,000,000
2006타경 18566	27	목포시 산동 776-2 광장아파트 1동 3층 306호 59.40㎡	아파트	34,000,000 34,000,000
2006타경 18567	28	목포시 산동 331 현대아파트 103동 1층 106호 84.99㎡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06타경 18568	29	목포시 산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4층 910호 56.07㎡	아파트	40,000,000 40,000,000
2006타경 18569	30	목포시 산동 776-2 광장아파트 1동 3층 306호 59.40㎡	아파트	34,000,000 34,000,000
2006타경 18570	31	목포시 산동 331 현대아파트 103동 1층 106호 84.99㎡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06타경 18571	32	목포시 산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4층 910호 56.07㎡	아파트	40,000,000 40,000,000
2006타경 18572	33	목포시 산동 776-2 광장아파트 1동 3층 306호 59.40㎡	아파트	34,000,000 34,000,000
2006타경 18573	34	목포시 산동 331 현대아파트 103동 1층 106호 84.99㎡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06타경 18574	35	목포시 산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4층 910호 56.07㎡	아파트	40,000,000 40,000,000
2006타경 18575	36	목포시 산동 776-2 광장아파트 1동 3층 306호 59.40㎡	아파트	34,000,000 34,000,000
2006타경 18576	37	목포시 산동 331 현대아파트 103동 1층 106호 84.99㎡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06타경 18577	38	목포시 산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4층 910호 56.07㎡	아파트	40,000,000 40,000,000
2006타경 1				